





우리들의
단톡방

‘천권도서관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선화

김은숙

김진선

김희연

박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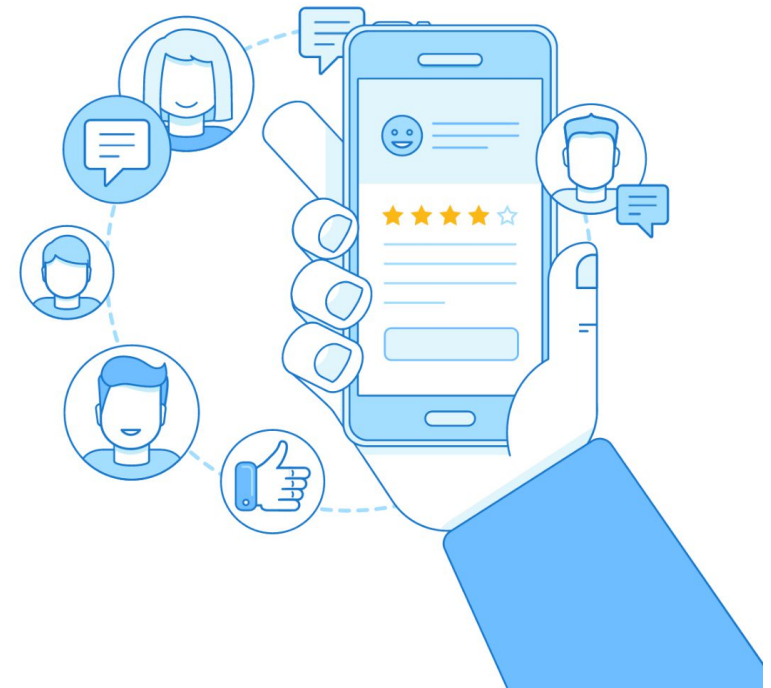
박명숙

우정현

이재선

정귀자

황오녀



카톡, 카톡. 조용하던 핸드폰에 알림음이 뜹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 인연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릴 수가 없지요.
누구는 대학 생활로 심정증을 앓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정직을 안 했어서 직장을 구했다고 하네요.
백만가지 커튼을 치죠.

아름답고 귀여운 커플,
흔들 흔들린 친구들까지,
특별 소년에게 할 줄과 맞서는 딸
우리들의 행복담이 터져 나올 수 없었습니다.
카톡, 카톡. 지워진 글 흔적이지만 알 수 없는 문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주세요.

